

청정 제주의 고성목장을 찾아서

제주낙농협동조합 검정소 소장 / 김형진

축산하면 제주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주도 낙농의 산실인 제주낙농협동조합 검정소의 고성목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개량사업은 눈부실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도 예쁜 암송아지가 태어났다. 여느 목장처럼 어미소의 상태를 살펴보고 칼슘제 및 영양제를 투여하고 송아지는 송아지 케이지로 옮겨 놓고서야 새 식구를 맞이하는 행사는 무사히 끝났다. 가끔 난산으로 인하여 몇 시간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오늘은 다행히 순산하여 손쉽게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분만을 수 차례 혹은 수 백번을 겪었지만 매번 긴장의 연속이며 한 생명체의 탄생은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

송아지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미르, 미숙, 미향.....!!!』

목장에 들어서면서 현재의 최악의 낙농여건 속에서도 낙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성목장 김형언 사장님의 생명에 대한 또, 낙농업에 대한 확고하고 진실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펼쳐졌다. 청정 제주의 진정한 낙농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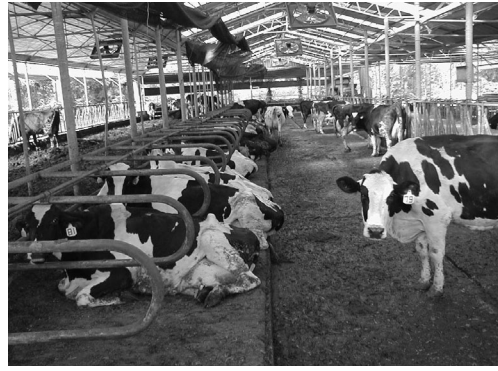
제주 시내를 벗어나 중산간 도로를 10여분 달리다 보면 미깡밭(감귤밭의 제주사투리)에 조용히 자리잡은 고성목장을 볼 수 있다. 드넓은 초지와 넓은 축사부지의 대다수의 축사와

는 달리 미깡밭 속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지리적으로 좋지 않은 여건속에서 해마다 감귤나무를 베어버리고 축사부지를 넓히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감귤밭은 사라지고 건초창고, 퇴비사 등등 제반시설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었다. 최근에도 퇴비사 증축 및 비가림 축사를 짓기 위한 기초공사를 한창 하고 있다.



<그림 1> 증축중인 퇴비사 시설

김형언 사장님은 평소 과묵하고 겸손한 성격이라 『젓소개량지』에 소개를 극구 사양하며, 우리 목장보다 우수한 목장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목장을 소개를 하고자 하느냐? 하신다. 몇몇 목장 이름까지 대시면서 우리목장은



<그림 2>후리스틀우사와 사료섭취 광경

<표 1> 고성목장의 연도별 검정성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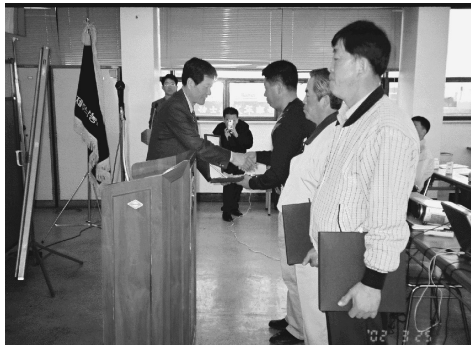
구분	경산우두수	착유유량(kg)	유지율(%)	305일 유량kg	출하량(kg)	유대지수(원)
1998	23	21.0	3.35	6,000	398	3,186
1999	31	21.4	3.49	6,382	528	3,638
2000	38	23.3	3.56	7,141	770	4,070
2001	45	27.0	3.87	8,063	987	4,910
2002	45	29.5	3.81	9,255	1,081	5,636

아직은 아니라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남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은데 오히려 남에게 우리목장을 소개하는 것은 부끄럽다”며 만류하는 것을 목장소개는 결코 우수 목장만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목장소개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며 간신히 허락을 받고 이곳 저곳 목장사진을 찍고 목장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성목장의 김형언 사장님은 1990년도 농어민 후계자(지금의 농업경영인)로 선정되어 초유떼기를 구입하여 낙농업의 첫발을 내딛고 2002년 현재 착유두수 36두 착유에 총두수 91두의 전업규모의 낙농을 하고 있다. 김형언 사장님께서서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목장이라고 겸손해 하지만 사실 고성목장은 제주도내에서 상위 5위안에 속하는 우수농가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 길지 않은

낙농경력 속에서 꾸준히 개량에 힘써 온 결과로 지금의 우수한 목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어느 지역이든 선도농가가 있다.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러한 목장이 그 지역의 대표목장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묵묵히 목장경영과 개량에 힘을 기울여 그 못지 않은 목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목장도 있다. 그러한 목장이 지금의 고성목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검정성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성목장은 1998년 검정을 시작하여 1998년 305일 산유량이 6,000kg 수준에서 2000년 7,000kg, 2001년 8,000kg, 2002년 현재에는 9,000kg이 넘는 놀라운 향상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김형언 사장님의 그 동안 낙농의 살길은 개량밖에 없다는 굳은 의지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그림 3〉 김형언 사장님의 유우농능력검정 보고회 시상장면

아직도 몇몇 농가에서는 고성목장이 어디야? 혹은 누군데 이렇게 높은 산유량을 나타내냐? 며 의아해 하시곤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고성목장은 우연히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김형언 사장님의 꾸준한 노력과 개량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결과라 볼 수 있다.

고성목장 김형언 사장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혈통내역을 기록한 등록증이다.

모든 개체의 등록증은 깨끗한 등록증철에 가지런히 꽂혀있고 등록증 뒷면에는 번식사항이 꼼꼼히 적혀 있다. 암송아지를 낳 때마다 일주일일 무섭게 검정소로 전화를 해서 등록을 의뢰한다. 또한, 송아지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준다. “미”자 돌림의 미향, 미숙, 미랑 등등 김형언 사장님은 송아지등록이 마치 자식 출생신고처럼 소중하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등록증이 발급될 때마다 혹시 부, 모가 잘못되지 않았나 일일이 점검한 후에 등록증철에 가지런히 철을 하고, 번식대장 또한 첨부를 한다. 개량의 기초가 혈통관리란 점을 강조 하시면서 모든 개체의 등록은 기본이고 혈통 관리는 철저히 하신다. 그래서, 고성목장의 대부분 개체는 본등록 이상이며 혈통등록이 대다수이다. 고성목장은 여느 목장과 달리 등록

은 기본이라는 인식보다는 더 나아가 오히려 새 식구의 등록증을 받아보는 즐거움으로 등록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다.

이렇듯 철저한 혈통관리속에 고성목장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종모우정액의 선별 및 구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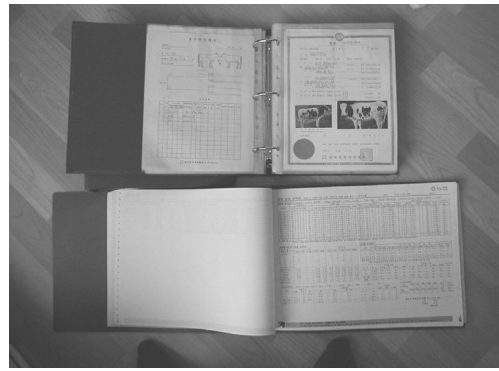
매년 정액구입비로 천만원 이상 들어감에도 해마다 그 정액구입비는 목장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신념아래 아낌없이 투자를 하신다.

짧은 목장 경력과 초기에 젖소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시작을 한 상태라 처음 시작 당시의 젖소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보다 빠른 개량을 위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수한 정액을 선정하여 수정시킴으로서 우수한 후보축 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매년 종모우 자료를 수집하여 미국산 및 캐나다산 정액중 상위 1, 2위 정도의 정액을 구입하여 시술하고 있다. 또한 몇 년 전 부터는 젖소의 산유량측면보다는 지제나 체형위주로 정액선정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후리스톨 방식의 축사와 좁은 사육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목장에 맞는 보다 나은 후보축을 생산하기 위함을 엿볼 수 있다.

요즘 산유량위주의 개량보다는 강건성 및 생애생산성 위주의 개량방향을 강조하는데 고성목장은 일찍부터 그것을 준비해 온 것이다. 이렇듯 앞선 경영속에서 2001년 검정사업평가에서 『고성 31호』가 최고 산유량 개체우로 선정되었고 2002년 현재 남들보다 한발 더 향상된 목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성목장에서는 환경에도 큰 관심을 쓰고 있다. 친환경 축산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



<그림 4>오늘날의 고성목장을 가능케한 소중한 자산인 등록증과 검정성적 자료

환경단속에 불안해 하기전에 먼저 목장에서 철저한 퇴비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고성목장의 또 하나의 지침이다. 스크레퍼를 이용해 퇴비를 처리하며 그에 알맞은 퇴비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근에는 퇴비사를 증축하고 있다. 한 방울의 오물이라도 외부에 유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축산, 친환경 낙농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림 5>고성목장 착유시설

원유의 질적인 면에서 고성목장은 세균 1등급은 물론이고 체세포 또한 1등급을 받는 등 청정 제주이미지에 맞는 청정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하듯 개량과 사양, 질병, 환경 등 낙농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지금의 고성목장을 만들었다고 본다.

지금의 낙농은 무척 어려운 시기이다. 생산쿼터제니, 차등가격제니 하며 무척 대외적으로 시끄럽고 복잡하다. 허나 애석하게도 어려운 시기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나 개인이 아닌 낙농업의 전체를 위한 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오늘의 힘든 낙농여건 속에서도 김형언 사장님은 불평이나 불만을 내놓기 보다는 “우리 같은 낙농인이야 개량을 통한 합리적인 목장경영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나?”며 짧은 한숨 속에 지금의 낙농여건이 처한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사모님께서 앞으로 좀 더 목장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에 그래도 우리목장이 책자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좀 괜찮은 목장에 드는 것이 아니냐?며 으쓱거리시며 미소짓는 사장님의 모습속에 고성목장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곱과 같은 우직함으로 오늘보다 나은 고성목장의 미래를 굳건히 만들 것을 기대한다.

고성목장 파이팅! 다정이 아빠 파이팅!!
^^v~~~!

※ 목장 연락처
주소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334 고성목장
전화 : 064-713-6580